

뉴라이프 한국학교 뉴스레터

New Life Korean School Newsletter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이 되어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뉴라이프 한국학교도 가을학기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1. 학부모님 협조사항

- 몇 차례 말씀드렸습지만 우리 학교는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른 학생의 학습과 건전한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업 시작 5분 전(5시 25분)까지는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학교에 데리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생들이 등교할 때 간단한 간식을 먹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숙제를 완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선생님들이 준비한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학생이나 가족 중에 코로나나 다른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생이 기침이나 콧물 등을 흘려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별도의 빈 교실에서 부모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한국전통문화 체험장

- 이미 광고된 대로, 10월 8일 10시에는 덴버제자교회에서 한국전통문화체험장이 개최됩니다. 콜로라도에서 운영되는 각 한국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널뛰기, 달고나, 제기차기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0월 7일 금요일 수업은 없습니다.
- 행사 당일에는 9시 55분에 데려다 주시고, 오후 1시에 학생들을 픽업해 주시면 됩니다.
- 체험장의 참가비는 학생당 10불이고, 현금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학생들에게 행사 관련 양식을 전달하였습지만,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별첨한 양식을 작성하여 오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학부모 면담

- 학기의 절반을 보내면서 자녀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0 월 14 일과 28 일 이틀에 걸쳐 학부모님들이 각 선생님들을 만나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셔서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 주시고, 2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시면 각각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 [학부모 간담회 양식으로 가기](#)
- 부모님들이 선택하신 시간에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로 연락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학부모 식사봉사

-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식사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학기 동안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고 식사 당번날에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오셔서(5 시경까지) 주방의 학교봉사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인업을 하지 않으셨어도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10 월 14 일	이미윤	김소연
10 월 21 일	가을방학(Fall Break)	
10 월 28 일	한유희	김종미
11 월 4 일	윤혜준	한다운
11 월 11 일	유소희	
11 월 18 일	Sarah Fukunaga	Jeanie Kwon
11 월 25 일	추수감사절방학(Thanksgiving Holiday)	
12 월 2 일	지선화	남천영

5. 앞으로의 일정

- 10 월 14 일: 한글날 관련 특별활동, 학부모 면담(1)
- **10 월 21 일: 가을방학**
- 10 월 28 일: 학부모 면담(2)
- 11 월 4 일/11 일: 동요/거북선 만들기 특별활동
- 11 월 18 일: 김장실습
- 11 월 25 일: 추수감사절 방학
- 12 월 2 일: 방학식

6. 기타 문의 및 정보

-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웹사이트 주소도 아래와 같습니다.
 - 이메일: conlmcks@gmail.com
 - 뉴라이프 한국학교 웹사이트: <https://newlifekoreanschool.org>

학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풍성하고 건강한 가을 누리시길 뉴라이프 한국학교의 온 교직원이 기도드리며, 학부모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면담시에 뵙겠습니다.

뉴라이프 한국학교 드림